

# “DJ처럼 20년 먹거리 만들 것”...미래 외치며 ‘목포의 눈물’ 열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장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목포·나주·광주 릴레이 유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아권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당내 최대 지지기반을 다지고 '개혁·미래·통합'을 기치로 내건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DJ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와 나주에 이어 광주를 찾아 릴레이 유세전을 펼쳤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7일 전주와 광주를 찾은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당내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으로 발걸음을 한 것이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지지율이 뒤지면서 '안풍'(安風)의 진원지인 호남에서 총력전을 펼쳐 다시 한번 '안풍'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지지자와 시민 3000여명(경향 추산·전회 측 추산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유세에서 "민주화 시대 넘어 이제 미래로 나아가 한다. 보수와 진보의 울타리를 넘어 국민의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보수·진보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낡고 수구적인 보수·진보와 헤어질 때"라면서 "이념과 국민 편가르기 하는 계파 패권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 미래를 위해 나가려는 정의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산업과 민주화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 20년 미래 먹거리

## “저의 승리가 제2의 DJ 길” 호소 무안공항 육성 등 전남공약 제시 지역구 의원들도 표심잡기 올인

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번 대선은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조롱할 때 저는 자랑스럽게 국민의당 깃발 들고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국민의당 찍어달라고 했다. 호남을 무시하는 민주당에게 또다시 속아선 안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 "누가 호남을 대변할 자격이 있느냐? 누가 이 지극지극한 호남 차별을 끝낼 수 있겠느냐"면서 "저의 승리가 제2의 DJ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국민의 길은 계파 패권주의를 거부한다. 패권주의는 상대 후보 지지 국민까지 적폐로 몰아부치는 세력이다. 이 세력에게 또 다시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면서 "권력 이용해서 지식에게 취업 특혜 입학특혜주는 상속자 나라 끝장 내겠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면서 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꼬집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 공약도 제시했다. 미래자동차산업 중심 성장,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조성, 미

래건축 연구개발 육성을 통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광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안 후보는 목포역 광장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정보통신)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를 만들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새로운 2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것이 DJ정신이고 호남정신 아니겠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남이 미래 4차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도록 해 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전남 경제를 살리고 전남을 잘살게 하겠다"면서 "미래 산업·미래 일자리 전남에서 일으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해양에너지·복합발전 플랜트 육성 ▲차세대 국가 우주항공 산업 거점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벨트 신산업 육성 ▲전남 국제 선도지구 지정 ▲무안 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동북아시아 해양수산·관광산업의 세계적인 메카 육성 등의 전남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의 연설이 끝난 뒤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오자 박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 최경환·이인주 의원 등과 함께 열창하기도 했다.

한편, 박지원 대표 등 호남지역 의원들은 오는 29일까지 호남 표심잡기에 '올인'하기로 했다.

이런 호남 총력전은 최근 지지율 선두인 문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부터 다져 놓아 반전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대 지지기반에서 '더 나은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뒤 수도권과 영남에서 '안풍(安風)'을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문재인 ‘중원 표몰이’ 충남 집중유세

###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등 공약...정운찬측 일부 인사 캠프 합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충남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중원'(中願)을 공약했다.

우선, 문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의 아리리오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천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통 중심도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천안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미래 기술 융합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문 후보가 충청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일 충북 정주에서 유세를 한데 이어 두 번째다. 충청에 공을 들이는 것은 대선 때마다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자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본거지라는 점에서 표심을 흡수할 여지가 충분한 지역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이 충남 방문 바로 전날 진행된 첫 천주연설에 안 지사의 아내 민주원씨를 연사로 내세운 것도 이런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 후보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핵심가치인 '동반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후보 직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해 정 전 총리 측 일부 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가 현재까지 '중립'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 전 총리의 가치와 '정운찬의 사람들'을 끌어안아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총리를 만나고 수차례 통화를 하며 영입을 추진했으나 최종 결심을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문 후보는 정 전 총리와의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문제에 적극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선대위 산하에 후보 직속으로 동반성장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문 후보 선대위는 문 후보의 직접 지시에 따라 별도로 동반성장위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한민회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상임대표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송민순 문건’ 입씨름...검찰 개혁 한목소리

### 선관위 대선후보 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23일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외교·안보·대북정책과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문 후보를 둘러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지원 문건의 논란'과 홍 후보 자서전에 나온 '돼지 발정제 논란' 등에 대한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안·유·심 후보는 자서전 내용을 문제 삼아 홍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심 후보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유 후보는 "강간미수 공범"이라고, 안 후보는 "용서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문 후보도 홍 후보와의 논쟁 과정에서 "다 사퇴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친구가 한 것을 못 막아 죄송스럽다.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대북 사전문의 논란을 거론하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북한에 사전에 물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송민순 전 장관 증인에 의하면 (문 후보 해명)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월16일 기권으로 결론 내렸고 18일 회의에서 재확인됐다고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비서관이 경위를 밝혔다"며 "구태의연한 색깔론에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가 문 후보 공격을 멈추지 않자 심 후보가 가세해 "색깔론을 극복하는 게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선 기준"이라며 유 후보를 비판했다.

양강의 문 후보와 안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안 후보는 "제가 MB의 아바타인가"라며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네거티브 논란을 거론하자 문 후보는 "항간에 그런 말이 있다. 아니면 본인이 해명하라"고 맞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정유년의 흥, 여수밤바다에 물들다!

제 51회 진남호국문화 여수 거북선축제

The 51th Yeosu Turtle Ship Festival

2017. 5.4.(목) - 5.7.(일)

여주시 이순신광장 및 종포해양공원 일원

주요행사

고유제 / 전라좌수영 입방군 점고 / 득제 / 통제영길놀이 / 개막식 / 소동놀이 / 용출다리기 / 매구 경연대회 / 해상수군 출정식 / 임진왜란유적지순례 / 체험행사 / 부대행사 등

■ 주최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 주관 제51회여수거북선축제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여주시 여수산업단지공정장협의회